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박희경(Hee-Kyung, Park)<sup>1)</sup>

윤갑정(Gab-Jung, Yoon)<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subjects consisted of 237 mothers with young children.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and one way ANOVA. The results included that 1)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erms of the mother's level of education, her monthly income in household, and job satisfaction when it came 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2)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both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 (positive affects) of subjective well-being, wherea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with regard to affective factors (negative affects) of subjective well-being. 3)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unted for 32.5% of subjective well-being. More specifically,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hen it came to determin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hich is also a cognitive factor of subjective well-being), whereas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hen it came to the affective factor of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 :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모-자녀관계(the mother-child relationship),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보육종합센터 어린이상담실 상담원

<sup>2)</sup>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Gab-Jung, Yoo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15, Korea  
E-mail : gyoon3@dhu.ac.kr.

## I. 서 론

인간의 삶에서 행복이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행복의 조건은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이처럼 행복은 오랫동안 인류의 관심사로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1세기 오늘날은 긍정심리학의 발전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복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행복연구는 크게 행복의 객관적 조건들에 따른 객관적 삶의 질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만족 정도인 주관적 삶의 질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Campbell(1976)은 객관적 삶의 조건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 지표는 인간이 지각하는 행복의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객관적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에 행복을 외적기준이 아닌 개인의 내적 가치체계를 중시하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하여 행복은 곧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Lee, 1997). 이러한 입장의 선구자인 Diener(1994)는 행복을 개인의 평가적 판단을 수반하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 감정을 자아내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 연구는 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인식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Kwon, 2011).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안녕감은 문화집단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삶의 질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특히 정서적 지원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Kim & Park, 2006; Park & Kim, 2009). 즉 한국 성인들의 행복은 일반적으

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적 자원들로부터 오는 정서적 지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에도 일반적인 성인의 행복연구에서 지적하는 관계적 요인들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영유아기 자녀양육이라는 특성이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애 발달 시기에 따른 행복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출산 이후에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급격히 저하되며 이는 주로 아내의 만족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Shapiro, Gottman, & Garrere, 2000). 이는 자녀출산 이후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스스로 인식하는 행복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자녀로 인해 변화되는 가족생활과 자녀가 자라면서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Woo, Kin, Lee, & Kim, 2009)은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Kim, Kim, & Park, 2008).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은 어머니의 행복과 나아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 만약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관계적 자원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면 가족관계 개선과 나아가 어머니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양육스트레스 연구를 중심으로(Moon, 2004; Song & Han, 2011; Yoon, 2006) 어머니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해왔다. 이는 영유아가가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과 같은 전 영역의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과 부모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발달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Kim, 2006; Kim & Lee, 2005; Moon, 2004; Park & Rim, 2002) 그 결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의 소득,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취업여부, 직업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생활만족 등(Kim, 2000; Kim, Doh, Kim & Lee, 2010; Kim & Yoon, 2000; Park & Moon, 2008)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이나 가정의 소득, 취업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연구들마다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일관되게 보고한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모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다(Kim et al., 2010).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남편의 지지에 의해 보다 수월하게 양육에 참여하며 이로써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편의 지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와 같은 지원을 어머니의 남편과의 관계변인으로 파악하여 부부관계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만족도는 단순한 부부관계에서의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생각

을 반영해오다가 최근에는 가족관계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부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Kim, 2011).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의 질에 영향을 주며(Kim, 2010) 특히 자녀와의 애정표현과 정서표현성(An, 2007) 및 정서적 학대 정도와 관련되어(Baek, 2011)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부모역할 수행에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우울증이 덜하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떨어질 때 구체적인 양육행동의 질은 악화된다(Park, 2004).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Kim, 2011) 남편에게 애정을 덜 느끼는 부인일수록 자녀를 꾸짖고 야단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Yang, 2000). 특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되며(Lee & Lee, 2000) 이러한 스트레스는 양육에서 남편의 이해와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Park & Kim, 199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며 이는 곧 양육에서의 행복으로 이어져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남편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자원 이외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자원은 자녀와의 관계이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녀 훈육방법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중요성(Chae, 2010; Moon, 2004)을 강조하여왔다. 또는 모-자녀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좌절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Park, Lee & Shin, 2009) 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관계가 어머니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모-자녀 관계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인 성격이나 심리적 기능, 그 외 남편의 지지,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들과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며(Ha, Oh, & Kim, 1999; Kim et al., 2007; Park, 2011) 이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행복은 결국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나 주변적 요인들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자녀 관계는 양방향적으로 자녀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Kuczynski, 2003) 자녀가 주는 삶의 가치와 행복(Kim et al., 2008),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로 보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Choi, 2005)를 고려해볼 때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적 요인이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인 행복은 삶에 대한 태도로 기본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지만(Diener, 1994)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Andrews & Withey, 1976, cited in Kim et al., 2003). 즉,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각 차원은 서로 구분되며, 정서적 차원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역시 반드시 긍정적 정서를 많

이 경험한다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서 인지적 요소는 삶에 대한 만족에 초점을 두는 삶의 만족도를, 정서적 요소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의미하는 것(Kim et al., 2003)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누고 이를 결혼만족도와 모-자녀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행복에 직업성취도나 월평균 수입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Park & Kim, 2009)에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영향력 및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의 성인들에게 주요 영향요인이었던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관계적 요인 중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밝혀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

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시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2곳, 유치원 2곳)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2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30대(84.4%), 학력은 '전문대졸'(38.0%), 가계 월소득은 '301만원~500만원이하'가 103명(43.5%)가 가장 많았다. 직업 있는 경우가 134명(56.5%)으로 없는 경우 103명(43.5%)보다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0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149명(62.9%), 자녀의 연령은 만 5세가 70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모-자녀 관계

모-자녀 관계는 Oh(2005)가 사용한 어머니-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갈등, 친밀감, 의존성 3개 하위 척도로 '아이는 나에게 화를 잘 낸다.', '아이는 꾸지람을 받은 후에 계속 화를 내거나 저항한다.' 등 모-자녀 관계가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의 정도인 갈등을 측정하는 12문항, '나는 아이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아이의 감정에 잘 공감이 된다.' 등 모-자녀의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인 친밀감을 측정하는 14문항, '아이

는 나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아이는 나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등 자녀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의존성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늘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였으며, 2, 6, 7, 9, 11, 12, 14, 15, 17, 18, 19, 20, 21, 24, 25, 27, 28번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갈등 Cronbach's  $\alpha = .720$ , 친밀감 Cronbach's  $\alpha = .867$ , 의존성 Cronbach's  $\alpha = .596$ 이었다.

####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 그리고 Bowden (1981)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Lee(200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Lee(2006)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 측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적 측면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어머니의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만족으로 접근한 것에 부합하여 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개의 문항으로 11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6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alpha = .862$ 이었다.

####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성되어있으며(Diener, 1994)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Kwon, 2011) 본 연구에서는 각 요

&lt;Table 1&gt;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Contents	N (%)
Age	20s	6( 2.5)
	30s	200(84.4)
	Over 40s	31(13.1)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63(26.6)
	College graduates	90(38.0)
	University graduates	70(29.5)
	Grad school graduates	14( 5.9)
Monthly income in household	Below 1,000,000won	3( 1.3)
	1,010,000~3,000,000won and less	84(35.4)
	3,010,000~5,000,000won and less	103(43.5)
	Over 5,010,000won	47(19.8)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134(56.5)
	Unemployment	103(43.5)
Job satisfaction*	Dissatisfied	6( 4.4)
	Normal	49(36.5)
	Satisfied	70(52.6)
	Very satisfied	9( 6.6)
	Total	134( 100)
Number of children	1	49(20.7)
	2	149(62.9)
	3	39(16.5)
Child's age	1 year old	20( 8.4)
	2 years old	40(16.9)
	3 years old	62(26.2)
	4 years old	45(19.0)
	5 years old	70(29.5)
Total		237( 100)

\* only employed people have answered

소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1) 인지적 요소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는 Kwon(2011)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 :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로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alpha = .901$ 이다.

#### (2) 정서적 요소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포함하며 행복감, 즐거움, 환희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우울감, 슬픔, 질투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고 본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또한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상당히 독립적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Kwon(2011)이 번안한 긍정 및 부정 정서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10개의 긍정적 정서 형용사와 부정적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긍정적 정서 형용사 문항 점수와 부정적 정서 형용사 문항 점수를 각각 합하여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점수를 낸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긍정적 정서 Cronbach's  $\alpha = .913$ , 부정적 정서 Cronbach's  $\alpha = .908$ 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9월 20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U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2곳에 총 400부가 배부되었다. 먼저 각 기관의 원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원장이 각 반 교사를 통해 유아들 편으로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24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기제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한 총 237부(59.25%)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hapiro-Wilk으로 정규성을 검증하였으며,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 및 부정 정서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와 주

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는 연령( $p < .05$ ), 학력( $p < .01$ ) 가계 월소득( $p < .001$ ), 직업만족도( $p < .001$ ), 자녀 수( $p < .01$ ), 자녀연령( $p < .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삶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30대가 40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 ‘대학교졸’과 ‘대학원졸’이 ‘고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계 월소득에 따라서는 301만원이상이 300만원이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직업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불만’과 ‘보통’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1명과 2명이 3명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녀연령은 만 2세가 만 5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긍정적 정서는 학력( $p < .001$ ) 가계 월소득( $p < .01$ ), 직업 유무( $p < .05$ ), 직업만족도( $p < .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긍정적 정서는 학력에 따라 ‘대학교졸’과 ‘대학원졸’이 ‘고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계 월소득에 따라 501만원이상이 300만원이

&lt;Table 2&gt;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by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SWLS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M(SD)	t/F	M(SD)	t/F	M(SD)	t/F
Age	20s	19.17ab		29.83		26.17	
	30s	20.97a	4.601*	31.52	.218	22.99	.598
	Over 40s	17.39b		31.48		23.32	
	Total	20.46		31.51		23.09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18.25a		28.94a		25.97a	
	College graduates	20.76ab		31.52ab		22.46b	
	University graduates	21.36b	4.690**	32.86b	7.468***	21.84b	5.141**
	Grad school graduates	23.86b		35.64b		20.86b	
	Total	20.46		31.51		23.09	
Monthly income in household	Below 1,000,000won	17.67a		29.00a		26.00a	
	1,010,000~3,000,000 won and less	17.85a		29.79a		26.05a	
	3,010,000~5,000,000 won and less	21.59b	9.140***	31.78ab	5.219**	21.67b	8.766***
	Over 5,010,000won	22.79b		33.98b		20.85b	
	Total	20.46		31.51		23.09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21.04		32.38		22.01	
	Unemployment	19.68	1.670	30.29	2.574*	24.54	-2.759*
	Total	20.45		31.47		23.11	
Job satisfaction	Dissatisfied	13.50a		25.17a		30.33a	
	Normal	18.76a		31.16ab		24.22a	
	Satisfied	22.57b	10.188***	32.96bc	7.717***	20.78b	8.520***
	Very satisfied	26.33b		37.89c		18.56b	
Total	21.03	32.28		21.31			
Number of children	1	21.24a		31.27		21.41	
	2	20.93a	4.855**	32.05	2.642	22.16	2.964
	3	17.64b		29.54		25.08	
	Total	20.45		31.47		23.11	
Child's age	1 years old	21.70ab		33.05		24.00	
	2 years old	22.60a		33.05		21.05	
	3 years old	20.29ab	2.945*	30.50	1.453	23.63	1.368
	4 years old	20.98ab		31.16		22.49	
	5 years old	18.67b		31.19		23.99	
Total	20.45		31.47		23.11		

\* $p < .05$ . \*\* $p < .01$ . \*\*\* $p < .001$ .



하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이 ‘불만’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부정적 정서는 학력( $p < .01$ ), 가계 월소득( $p < .001$ ), 직업유무( $p < .05$ ), 직업만족도( $p < .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부정적 정서는 학력에 따라 ‘고졸’이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보다 높았으며, 가계 월소득에 따라 300만원이하가 301만원이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만족도에 따라서는 ‘불만’과 ‘보통’이 만족과 매우 만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즉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는 공통적으로 학력, 월소득, 직업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2.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모-자녀 관계는 삶의 만족도( $r = .371, p < .01$ )와 긍정적 정서( $r = .562, p < .01$ )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 $r = -.558, p < .01$ )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r = .635, p < .01$ )와 정적인 상관( $r = .444, p < .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 $r = -.510, p < .01$ )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본 결과 공차와 VIF가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mother-child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Mother-child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SWLS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Mother-child relationship		.493**	.371**	.562**	-.558**
Marital satisfaction			.635**	.444**	-.510**
SWLS				.495**	-.474**
Positive affectivity					-.491**
Negative affectivity					

\*\* $p < .01$ .

<Table 4>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B	$\beta$	t	R	R <sup>2</sup>	F
		.707					
SWLS	Age	4.164	.199	2.943**			
	Level of education	-.586	-.046	-.709			
	Monthly income	.018	.001	.021			
	Number of children	-.846	-.081	-1.211	.695	.483	14.959***
	Child's age	-.242	-.054	-.776			
	Job satisfaction	2.402	.256	3.357**			
	Mother-child relationship	-.051	-.077	-1.011			
	Marital satisfaction	.265	.496	6.791***			
		.024					
Positive affectivity	Level of education	.360	.031	.410			
	Monthly income	.555	.048	.638			
	Employment status	-.994	-.027	-.351	.542	.293	8.991***
	Job satisfaction	1.407	.164	1.947			
	Mother-child relationship	.202	.337	3.723***			
	Marital satisfaction	.085	.174	2.099*			
		61.301					
Negative affectivity	Level of education	.483	.038	.577			
	Monthly income	.802	.064	.966			
	Employment status	4.918	.132	1.913	.668	.446	17.462***
	Job satisfaction	-1.054	-.114	-1.528			
	Mother-child relationship	-.266	-.410	-5.129***			
	Marital satisfaction	-.126	-.238	-3.252**			

\*\*p < .01. \*\*\*p < .001.

을 줄 수 있는 변인인 연령, 학력, 월수입, 자녀 수, 자녀 연령, 직업만족도와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48.3%였으며, 예측변인은 연령,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력, 월수입, 자녀수, 자녀 연령은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은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beta = .496$ ) 직업만족도( $\beta = .256$ ), 연령( $\beta = .199$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와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29.3%였으며, 예측변인은 모-자녀 관계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와 같은 사

회인구학적 변인은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은 모-자녀 관계( $\beta = .337$ )가 결혼만족도( $\beta = .174$ )보다 높았다. 즉,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긍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예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와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44.6%였으며, 예측변인은 모-자녀 관계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은 모-자녀 관계( $\beta = -.410$ )가 결혼만족도( $\beta = -.238$ )보다 높았다. 즉,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모-자녀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예언한다고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즉 삶의 만족도와 긍정, 부정적 정서는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학력, 월소득, 직업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력(Kim et al., 2003; Kim & Park 2006), 월소득(Kim et al., 2003; Park &

Kim, 2006)과 직업만족도(Diener & Lucas, 1999)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력과 월소득은 한국 사회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학업을 통해 자신을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연마함으로써 학업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적 가치로 지각하는 것과 동시에 높은 학업성취를 통해 계층의 이동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위와 경제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수단적 가치로 지각한다. 이에 따라 학력은 학생, 노인집단과 비교할 때 성인집단의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으며(Kim & Park, 2006) 동일하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한편 직업만족도는 개인의 성격과 적성이 직업적 업무나 작업환경과 잘 맞고, 개인의 자율성, 내재적 보상, 지지적 관계 등의 특성을 지닌 경우 높으며 직업활동을 할 때 행복에 중요한 몰입 경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Kwon, 2011). 또한 Diener와 Lucas의 연구(1999)에 따르면 직업만족도는 행복과의 상관이 약 .4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직업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들이 연구되어왔다. 그 결과 취업유무는 행복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비일관적(Baek, 2007; Chae, Kang, Lee & Shin, 1999; Kim et al., 2010; Park & Kim, 2009)인데 반해 직업만족도가 높을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Kim et al., 2010; Moon, 2004). 따라서 직업만족도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

학적 변인이 학력, 월소득과 직업만족도라는 것으로 한국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이 동일하게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도에는 어머니의 연령, 자녀 연령과 자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0대 이상의 어머니가 30대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한국성인의 행복에 정적 상관은 있으나 그 상관의 정도가 무상관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았으나(Park &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30대 어머니들보다 40대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출산연령 또한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양육을 하는 어머니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가 만 5세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취학 전 연령인 자녀의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높은 교육

열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학업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의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성인들은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자녀의 교육 및 발전을 통한 성취로 얻는 대리적 성취감을 성공경험으로 지각하고(Park, Kim & Tak, 2002) 가정생활 스트레스 내용으로 가족과 부부관계(13.3%), 자녀교육(12.1%)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Park, Kim & Kim, 2002).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함에도 실제로는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영유아기 때 사교육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Woo et al., 2009). 따라서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수는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한국 성인 20대에서 8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자녀수는 행복과 무관하였으나(Park & Kim, 2009) Lim과 Park(2010)에 따르면 18개월~32개월 영유아기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부모역할부담감이 2명 이하일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비와 양육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Woo et al., 2009)에서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2명 이하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낮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녀 출산정책의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는 직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긍정 정서를 더 느끼고 부정 정서를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지겨움과 우울을 많이 느끼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직업유무는 행복과 관련 있으며 특히 긍정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Algye, 2003).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Lee, 2008) 취업유무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여(Kim et al., 2010) 그 결과는 비일관적이었다. 이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긍정 정서를 더 느낀다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양육스트레스와 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행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drickson(2002)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 경험은 인간의 일시적인 사고기능과 행동양식으로 확장되어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축적하게 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상향적 발전과 성장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선순환을 통해 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함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Kim et al., 2008) 어머니에게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위한 수단 이외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를 함으로써 남편의 양육 참여나 정서적 지지를 전업주부보다 더 많이 받거나 어머니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긍정적 정서를 더 경험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넷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

도와 모-자녀 관계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을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와 모-자녀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 모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고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았으며, 부정적 정서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와 같은 관계적 요인이 이들의 행복에 주 영향요인일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관계 중심의 우리문화에서 인간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Kim et al., 2003; Park & Kim, 2009)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는 연령,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예측변인들 중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예언함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보다 장기적인 삶의 상태에 대한 의식적 평가로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won, 2011). 따라서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장기적인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표현과 질 높은 양육행동을 보이며(Kim, 2010; An, 2007)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Park, 2004)할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자녀와의 관계를 잘 예측한다(Lazarus & Folkman, 1984)고 볼 때 높은 결혼만족도는 긍정적인 자

녀와의 관계, 나아가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과 연결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직업만족도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직업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강점을 발휘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업의 의미를 강하게 가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높아진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Kwon, 2011).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영향을 받는 삶의 만족도를 예측함에 있어 직업만족도가 예측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은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점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남편의 양육참여(Huh & Han, 2009)와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증진(Gottman, 1998; 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Hwang, 2009)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여섯째,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인인 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더 느끼고 부정 정서를 덜 느낀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측변인들 중 모-자녀 관계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예언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이라는 뗄 수 없는 접촉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Park & Kim, 2008)로 묘사되는 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 관계 내에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적게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와 잘 지낸다는 생각 자체가 어머니의 긍정 정서를 느끼게끔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자녀 관계는 양방향적인 것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Park et al., 2009), 양육 스트레스(Park, 2011), 그 외 어머니의 우울이나 정서적 지원부족(Jeon & Lee, 2009)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긍정적인 모-자녀 관계는 영유아의 발달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에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Park et al., 2009)에서 바람직한 모-자녀 관계형성이 어머니와 영유아의 행복에 모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은 어머니의 학력, 월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특히 월소득의 경우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고 한 것(Park & Kim, 2009)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월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행복에 필요한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함을 시사해주었다. 특히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더욱 인지적 요소에 예연력이 높고, 모-

자녀 관계는 정서적 요소에 예민력이 높았다. 이것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편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직업에서의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행복연구들은 그 연령 범위가 광범위하였으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주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점에서 본 연구는 제한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요인들 중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 즉, 자기효능감이나 우울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력은 살펴볼 수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직장여성의 행복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며(Park & Kim, 2009)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만족도 및 자녀에 대한 신뢰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Park & Kim, 2008). 따라서 이후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들과 관계적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어머니의 행복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의 경우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행복예측변인에 차이가 있었는데 40-50대의 전업주부들은 자녀의 성공이, 직장 여성들은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Park &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가 어머니의 정서적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은 행복을 예

측하는 변인은 아니었으며 이 보다 모-자녀 관계가 중요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어머니들, 특히 월소득과 직업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어머니들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대상의 특성들을 감안한다면 이후에는 저소득층이면서 직업만족도가 낮은 어머니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lgyle, M. (2003). Causes and correlates of happiness. In K. Daniel,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353-373).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An, M. E. (2007).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Back, K. S. (2011). The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on Child Abuse.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16*(2), 181-198.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hae, Y. M. (2010). Young Children's Emotion Control & Social Ability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Journal of Young Child*

- Studies*, 13, 117-132.
- Choi, I. J. (2005). The Influence of Cultural Uniqueness of Parent-Children Relationship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59-1076.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Lucas, F.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213-229).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Fredrickson, B. L. (2002). Positive emotions. In C. R. Syn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120-134). Oxford, England : Oxford University Press.
- Gable, S. L., Reis, H. T., Impett, E. A., & Asher, E. R.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good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228-245.
- Gottman, J. M. (1998). Psychology and the study of marit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169-197.
- Ha, E. H., Oh, K. J., & Kim, E. J. (1999).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with Clinical and Subclinical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79-93.
- Huh, B. Y., Han, K. J. (2009).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12(2), 131-146.
- Hwang, J. G.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2(2), 131-146.
- Jeon, M. S., Lee., Y. A. (2009). The Effect of Maternal Stress on Maternal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2(4), 97-116.
- Kim, H. S. (2011).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Pre-school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2), 299-310.
- Kim, J.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245-261.
- Kim, K.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zing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Working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9(1), 71-84.
- Kim, K. H., Doh, H. S., Kim, S. W., Lee, S.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



- 113.
- Kim, L. J., & Yoon, C.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 Kim, M. S., Kim, H. W., Cha, K. H., Lim, J. Y., & Han, Y. S. (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415-442.
- Kim, M. S., Kim, U. C., & Park, Y. S. (2008). Value of Children among Mothers of Infants : With Specific Focus on Positive and Negative Reasons for Having Children, in Proceedings of the 2008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m, S. S. (2006). A study on the government female employee'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Kim, U. H. (2010). Relationship of the Marital Satisfaction Level and Childrearing Attitude of Mothers to the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Kim, U. C., & Park, Y. S. (2006).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5), 1-28.
- Kuczynski, L. (2003). Beyond Bidirectionality : Bilateral conceptual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In L. Kuczynski(Eds.),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3-23). New Delhi, India : Sage.
- Kwon, S. M. (2011). *Positive psychology*. Seoul : Hakjisa.
- Lee, H. K. (1997). Positiv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Psychological Science*, 6(2), 45-60.
- Lee, H. S. (1998).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the Scale of Korean Womens' Psychological Characters 1.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Women*, 3(1), 103-116.
- Lee, J. E., & Lee, Y. H. (2000). The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Daily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Lee, K. H. (2006).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at different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Lim, S. H., & Park, S. H. (2010). The Relation of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a Number of Children to Parenting Stress and Toddler's Expressive Vocabulary.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251-278.
- Moon, H. J.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 109-122.
- Moon, Y. S. (2004).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by Type on Children's Empathy, Perspective-Taking & Prosocial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 Education*, 24(1), 115-143.
- Oh, K. Y. (2005).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based on Theraplay-Focusing on the correcting problematic behavior and promoting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
- Park, B. M. & Moon, J. H. (2008).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Communication Strateg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Strength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10), 11-22.
- Park, J. A. (2011). Studies on the understanding about mental health, mother-child relationship of mothers with high-risk parenting stress and their preschooler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5(1), 43-56.
- Park, J. A., Lee, K. S., Shin, Y. J. (2009). Effect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Women*, 14(4), 549-566.
- Park, S. M.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arriage satisfaction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Park, S. O. & Kim, J. H. (1995). Balancing work and family lives of working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13-25.
- Park, S. Y., & Rim, M. R. (2002). Work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Job Characteristics, Day Car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2), 57-68.
- Park, Y. S. & Kim, U. C. (2006).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5), 1-28.
- \_\_\_\_\_ (2008).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n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 With specific focus on social support from spouse, trust of children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4), 71-101.
- \_\_\_\_\_ (2009).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1), 95-132.
- Park, Y. S., Kim, U. C. & Kim, M. S. (2002). The experience of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of students and parents after the economic cri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2), 105-135.
- Park, Y. S., Kim, U. C., & Tak, S. Y (2002). Th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success attribution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1), 103-139.
- Seligman, M. E. P. (2006). *Authentic happiness*. (Kim, I. J. Trans.). Gyeonggi : Mulpure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Shapiro, A. F., Gottman, J. M., & Carrere, S. (2000). The baby and the marriage :

- Identifying factors that buffer against decline in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59-70.
- Song, M. J., & Han, S. Y. (2011). Effects of mother's neuroticism,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tress on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117-127.
- Yang, K. H. (2000).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rearing stress of mother of the autistic children and non-autistic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Yoon, M. H. (2006). Study on the Bringup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of Working Mothers and Social Support. 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Korea.
- Woo, N. H., Kim, Y. S., Lee, E. J., Kim, H. S. (2009). Examining Mothers'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Concern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Nurturing in the Low Birthrate Era.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297-325.

---

2011년 12월 31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